

편집자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덕목

《구석구석 인체탐험》과 《신기한 스쿨버스》의 예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한 사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참선하고 있었다. 그러자 다른 사내가 그 옆에서 솟돌에다 기왓장을 갈기 시작했다. 참선을 하던 사람이 왜 기왓장을 가느냐고 묻자 다른 사내는 거울을 만들려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한 사내가 기왓장을 갈아 어떻게 거울을 만드느냐고 힐책했다. 그러자 다른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갈했다. “야! 이 놈아, 너는 어떻게 앉아서 부처가 되려고 하느냐?” 마조 도일(馬祖 道一)과 회양(懷讓) 선사 사이에 있었던 이 일화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마주할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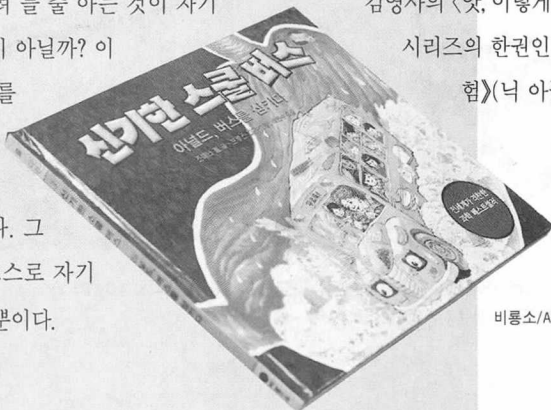
요즘 나는 출판사 대표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키우자고 이야기한다. 많은 출판사 대표들이 그 말에 동조하지만, “교정·교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기획 기획한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하물며 한 유명출판사의 대표마저 그런 소리를 했다. 나중에 그 출판사는 날마다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남아 교정·교열만 열심히 봐주기를 ‘강요’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런 일에만 익숙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눈부신 상상력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가령 내가 아는 한 ‘아줌마’ 기획자처럼 중요한 학술대회를 빼놓지 않고 찾아다니며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려 들 줄 아는 것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 아닐까? 이제 편집자들은 자기를 소모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세상에 분노할 줄 알아야만 한다. 그 분노를 푸는 길은 스스로 자기 능력을 키워 가는 것뿐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편집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상상력이 넘치는 책을 만들 줄 아는 것이다. 참신한 상상력으로 충만한 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문화적 DNA를 이해하는 거시적인 안목과 디자인 감각을 갖춰야만 한다. 그런데 많은 편집자들이 그런 안목을 갖추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일년에 3만2천명씩 배출되는 디자이너를 믿어서인지 스스로 디자인 감각을 익히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 잘 듣는 말랑말랑한 디자이너를 밑에 두고 부리고 싶어한다.

원고의 내용과 책 만들기 능력을 겸비한 편집자가 아니면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이미 출판시장에서 인간과 자연의 대립적 요소를 화해시키는 디자인적 상상력이 없는 책은 갈수록 시장성을 잃고 있다. 특히 유아·아동도서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디자인적 상상력과 활자적 상상력이 절묘하게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책이 아니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김영사의 <앗, 이렇게 재미있는 과학이> 시리즈의 한권인 《구석구석 인체탐험》(닉 아널드)은 흠쳐온 시



비룡소/A5변형/48면/7500원

체조각을 마치 깊은 잠에 빠졌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다시 결합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어느 조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신체의 각 부분을 차례로 소개한다. 뒤죽박죽 두뇌, 간단하지 않은 간, 돌고 돌아 혈액, 부지런한 심장...

비룡소의 《신기한 스쿨버스》(조애너 콜)는 스쿨버스가 공중으로 날거나 땅 속을 파고 들고,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3권 <아널드, 버스를 삼키다>에서는 프리즐 반 아이들을 태우고 사람 몸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가던 스쿨버스가 갑자기 작아지더니 치즈 과자 봉지 속으로 들어간다. 이를 모르고 주인공 아널드가 과자를 삼키자 스쿨버스는 그의 위장을 지나 혈관 안으로 들어가 심장, 허파, 뇌로 여행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인체가 음식물을 에너지로 만드는 과정과 각 신체의 기능을 배운다.

두 책 모두 인체를 설명하는데, 그 발상이 매우 탁월하다. 이런 책이 아니면 독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네트세대의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통해 화면에 익숙하다. 그들은 성인들과는 다른 ‘언어’에 친숙한 세대다. 감성과 사고방식도 전혀 다르다. 그들은 아주 재미있거나 유익한 책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재미있고 도움이 되며, 감동도 주고 유익하기도 한 매우 독특한 ‘한 권의 책’을 원한다. 이제 책 만들기는 아슬아슬한 스릴과 서스펜스를 즐기는 동안 저절로 공부라 되기를 꿈꾸는 새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그런데 두 책 모두 번역서다. 교정·교열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런 일만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 편집자들은 새로운 책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수입에만 의존한다. 교정·교열 자체가 기계화돼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분야의 직종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사실은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활자와 디자인적 상상력을 결합시킨 새로운 책을 만들어내는 편집자의 능력이다. ●